

4.
유형지에서 항방 불령된 우리 민족들.

나의 부친 박해준씨는 1945년 9월말에 집으로 떠나 원동변방 영해주 크라쓰끼노시에, 다른 지방에서 공병된 조선청년들과 함께 52명으로 되는 특별조로 도착하였던바, 그들은 영유케트주 군사동원부를 불어는 소련군 기관 리하일로브 상위의 호송을 받아 움직여왔다. 크라쓰끼노시, 이 곳은 1937년 조선인들의 강제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연후영이라고도 종종 불려 왔던바, 조선인들이 가장조밀하게 살고 있던 백시예트 구역 중앙소재지다. 이 곳은 1937년 7월에 소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조선인 정칙주로 민족자치회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그해 8월 21일에 원동지역에서 조선인종을 강제이주할데 대한 정령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소련 내각의 결정으로 발리야라 상기 정령은 실현에 옮겨지지 못하곤, 현당에서 김아파나씨 (약주 위력한 공산주의자로서 1921년에 박진순과함께 모스크와에서 레닌과 상봉하였음)는 소련 당국의 불법 독재 정책에 의하여

훈훈에 도착하였다 ~~이~~ 훈훈 역전은 얼마전에 군사행동이
 지나간 훈춘이 두렵게 눈이 보이게 되었으며 군인들이 사용하
 던 화물 차량 안에는 각종 한알 깎지들과 사용하지 아닌
 한 알들이 무척 ^{무척} 많았고, 역전에는 각종 군용기재와 무기를 적적
 한 차량들이 무수히 서있었으며, 파괴된 차량들과 화물차
 동차도 무질서하게 파기러기 서있었다. 크라스끼노
 시에서 여제리역에 출발하여 화물차로 훈춘에 도착하니
 이 지역은 노린양으로 불어 150킬로 메트나 격리되어
 있는 외국 땅이었다. 아버지는 한생후 처음으로 어떻게
 외국 땅을 밟아 보았느냐 여골지령들은 어렸을 때
 에 많이 들던 판자로 외국이란 직감을 별로 느끼
 지 못하였다. 역전에서 멀리 않게 단층 살림집들이 많이
 줄지어 서있었으나 고풍건물은 한채도 없고 꼭 그만큼
 한 살림용 어음집이 약 3-4개 보이겠을 변변하였다.
 일행은 역에서 객차량들에 무척 많은 후 조선
 지역을 향하여 남으로 출발하였다. 이 지역은 그
 지형으로 보아 노린 지역 무수리스크에서 크라스
 끼노 사이의 지형이 나 똑 같았다. 다만 화이점은 소
 련 지역에는 1937년때 강제이주로 인하여 조선사람
 들이 버리고 간 석마칸, 짐방마칸, 소가 집들이 많이 무너

지고 다른 쪽 받아 보아는가 하면

(14)

~~북한군~~ 석화간 예은 석나 돌위에 구름들이 신세 가련
하게 ^{백악이 눈} 어찌 기뻐하고 지나가는 행객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였다. 그러나 이 글은 파괴된 농촌은 보이지 ~~않았으나~~ 강제
이주된 노련의 원동처럼 ~~매질만 경리~~ ^{북한군으로} 아담하고
울긋불긋 특화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롭고 부드러운 ~~특성~~
으로 흘러 나오는 울릉 소리를 노래소리로 들을 수 없었다.

일행은 훈춘에서 떠나 약 2시간 후 두만역에 도착 하였으
며 ^{2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되자 북한 지역 추릉 ^{시에 이르렀다} ~~에 도착 하였다~~
서 원원위원회 간부들과 몇몇 인사들이 아버지의 일행을
노련에서 오신 해방군으로 따듯하게 접대하여 전부터
극수집에 보냈다 노련에서 나간 손님들은 집에서 출발
한지 근 일개월만에 훈조선음식을 아주 맛있게 들
면서 지방인원들과 더불어 좌담회를 가지 ^게 되었다. 한가
들 중 일부 노련들은 이전에 원동 연해주 등지에 가서 살다
가 오신분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러시아 말로 꽤 잘하시
였으며 노련군 선발부대의 홍역원으로 그들과 함께 참
진 계신까지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하였다. 노
련에서 오신 일행은 난생 처음으로 조선땅을 밟아 보
고 선조들의 고향 땅 인원들에게서 따듯한 접대를 받
고, ^{적역이 되자} 우리가 훈춘에서 하근 온 차량들을 노
련군 열차에 ^{달아가고} 회령 방행으로 출발 하였다.

기차가 움직이는 일정한 시간대가 없이 여유시간을 허용하여 움직이며, 연료도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 관계로 하고가는 열차는, 가만 가다가 하고 서면 쉬는 기차라서 여주지완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열차 차량안에는 아버지 일행이 하고가는 객차량 두개를 제외하고는 죄난인들을 꽂들어하고 넘어 차량 위 꼭대기에도 사람들로 한원어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열차는 그 다음날 저녁에야 회령읍에 도착하였던 바 지방인선들은 소련으로 붙어 조선인 해방군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가 도착하자 일행은 영접군들이 인도하에 크대한 음식집에 자리를 잡고 간단한 연설들을 주고 받은후 야구반가운 담화회에서 저녁시간은 ^{빨리} 놀러갔다. 이렇게 아버지 일행은 각군 노래회와 큰도시들에서 야구반가회 맞아주었으며 축하 연설도 많았으며 제일 다채롭게 맞아준 곳은 함흥시였다. 평양에 1945년 11월 중순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평양에서 소군 사령부 정치부가 발간하는 "소베트 신문"사에서 고령원으로 일하다가 1946년 5월 붙어 출판물집업국에서 상급 집업원, 집업국 부국장 직위에서 제식라기 한국의 동족 상쟁이 끝나라 공동성 북상으로 1960년

6 가지 제법인데, 북한에서 사상검열 운동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랐자 조선타를 모조리 청산화단판에 걸치며 아버지는 북상직책에서 철적최근 로동당에서 임종검고를 받고 함흥시 사대 부속장으로 조동되었다 함흥에 내려보낼때에는 "거기가서 약 2년 만 일 해보면 도루 중앙에 올라와 종전직책에 회복식한다고" 하였으니 4년이나 지나갔어도 사상검열에 처벌받은 간부로써 ^러 세대들의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함경남도 고원군 한광에 부지배인으로 내려보내었다가 ~~이후에~~ 1967의 아이돌이 전부다 조선에 가서 유학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 "사대주의", "조선사상이 농축하다"는 이유로 한광로동자를 내려보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후 한광간부 사책에서 일러나가 고원군 수동로동자구로 이동하여 가서 살면서 어머니는 1974년까지는 2년 내지 3년에 일차씩 라슈케트주에 살고 있는 많은 친척들을 찾아와 우리로 만나주곤 돈도, 의복도, 양식도 얻어가곤 하였다. 그리나 1975년 이후에는 우리 친척들이 후회에 걸쳐 "친척 방문 초청장을 보내

7
몇으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에 부모들이 살고 있던 주소 - "함경남도 고원군
우동 룡동자구 91번에" 편지를 보냈더니 그 골
에서 회답이 오기를 "본 주소에 박태준과
방옥순이 살지 않고 다른 주소로 옮겨 갔는
데 그 주소는 행정부처 병이라" 적어 보내었다.

이런 편지를 받고 나는 평양주재 소련 대사관
에, 모스크와 주재 조선 대사관에, 또 우르체크 한
외무성에 등에 편지를 보내며 행정부처 병된 우리
부모들을 찾아 달라고 요청을 드려왔다. 그러나 어
상 모든 기관들에서는 다 한가지 내용의 대답이 왔던
바 "당신에 부모들의 행방을 확정할수 없다"고 하였다.
우르체크 공화국 외무성의 공식적 질문에 대하여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 총영사 뤼. 뤼. 깐스끼 씨가 조선인
주주의 공화국 외무성 국제관계국장 리부덕 씨하고
1978년 7월에 담화가 있으나 조선측에서 아무
런 확정적인 대답을 주지 않기에 명확한것을 전
할수 없다는 회답이 왔을 뿐이었다.

나의 부친 박태준 씨는 1915년에 월등 병원 강연회
 주 신주원까지 손에서 한행하였다. 그는 최우등 성적으
 로 향농 농민청년 초중으로 졸업하고 1934년에 월등
 위르실로브시 조선인 사범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37
 년에 졸업하였다. 1937년 한인 강제이주시키에 아버
 지는 우르베르한 호테르 시에 도착하여 교편을 잡고
 일하시면서 호테르 사범대학에 농민청년에서 공
 부하였다. 그는 사대를 졸업한 다음 하슈켄스쿠 "노웨이
 북부 지" 글노르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일하였다 ^{아버지}
 는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 방옥순과 결혼하게 되었다
 1945년에 아버지가 조선에 나가신 후 어머니는
 만달 시나를 데리고 남포를 따라 1947년에 북
 한에 가게 되었다. 우리 부모들은 아주 정직한 얼굴으로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20여년간 아란 긴 세월을
 조국과 연인을 위하여서 사임하시였지만 북한 노동당의
 악질 정책 - 식량긴급한 명목하에 패사품을 열
 어 이전에 살던 지명에 따라 - 남한과, 중국과
 조선과, 지방과 비발치산 따름을 분별하고 패사
 품을 열고 물어 뜯기를 시강하여 무수한 연인들을

산해하고 나라를 망하게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모든}나 나라가 어쩔런 땅에 와서 유복하고
^{대항들을 필하고 무분위하게 자기 가정을 이루고 보나}
 잔배 굶어서 ^{우리들}이제는 ^말어머니 할 어머니가
 되었단 그러나 우리들은 유복지에 가서 소원종파
 란 수업을 보곤 15년간 고생하면서도 무리하고
 다시 반나서 옛날을 보면서 살 때가 돌아올것을
 희망하고 계시던 우리 부모들이 ^{행방 불명된}데
 대하여서 ^{명확한}해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며, ^{공명정당한}해명 꼭 있을것을
 믿는다.

700128 다슈켄스시, 15구, 8동, 사책 60호
 백라리사.